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50호 도감사 해탈문



해탈문에서

서춘기

문고리를 놓아라
문은 열려 있다
천년 전 그 바람
지금 다녀가고 있으니
문이 없어서 좋은 집
눈물의 집에 문이 있더냐
절망의 집에 문이 있더냐
문이 없어 경계도 없구나
무지개 아니면 첫사랑처럼
허망하게 떨어져 간 것들
오늘 다시 오고 있으니
설레는 가슴으로 강강술래
월출산에 꽃피어 좋은 날
동박새 승어 때 한데 어우러져
강강술래 강강술래
바다의 집에 문이 있더냐
하늘의 집에 문이 있더냐
돌아라 돌아라 가난한 사람들끼리
여기가 극락이다
그대가 극락이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서춘기 시인은... 전남 광양 출생. (시와 시학)으로 등단. 시집 <그 섬에 가려면>, <사람에 취하다> 등.

종조법어집 '진각' 8개 국어로 출간

진각종 회당종조 탄신 110주년 맞아

진각종이 회당종조 탄생 110주년을 맞아 한국어 포함 8개 국어로 번역된 종조법어집 <진각>(JINGAK Awakening of genuine mind)을 출간했다.

<진각>은 종조의 법어인 <실행론>중 일상 속에서 참 마음으로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도록 하는 가르침이 될 법구 120개가 담겨져 있다.

특히 <진각>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싱할리어(스리랑카), 네팔어, 티베트어, 몽골어 등 총 7개 외국어로 번역한 불교계 최초의 다언어 출판물이다.

이 책은 진각종 산하 학술단체인 회당학회와 함께 동남아 불교 국가를 순회하며 개최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해당국 스님을 종단유학승으로 받아 들여 종단 문화와 신행을 익히게 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진각>출간에 대해 통리원장 혜정 정사는 "종단의 신령가치인 자성(自性)과 회사(喜捨), 심인(心印)의 가르침과 사회적 의미를 여러 나라의 언어로 전하는 시도"라

며 "앞으로도 계속 다언어로 된 종조법어집을 계속 출판할 예정이며 '진각'을 주제로 한 국제 학술 세미나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각종 종비유학승 번역 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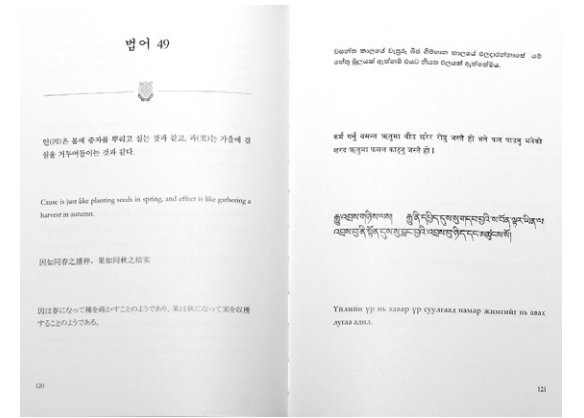
각국 문화와 관습 맞게 번역

7월 30일~8월 2일 회당축제도

이번 <진각>의 제작과정은 우선 영어 번역 뒤 위덕대 유학생과 학술교류 국가 관계자들에게 한글과 영어번역문을 제공한 다음 6개월의 조별 번역 및 교차 윤독과정을 거쳐 총 1년이 소요됐다. 또 종조 재세시인 해방 전후의 어법에 맞춰진 법어는 현대적 이해를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각국 문화와 생활 등 관습에 맞도록 주안점을 두어 번역한 것도 특징이다. 이는 각국 문화 기반에 기초해 이해와 접근 가



진각종 창종자인 회당종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티베트어 등 8개 국어로 번역된 종조 법어집 <진각>중 한 페이지

능성을 무엇보다 중시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앞으로 <진각>은 국제학술회 개최 국가 및 관계 기관, 해당 국가 한국대사관, 그 외 한국주재 외국대사관은 물론 일선 불교학 연구단체 및 대학도서관, 불교계 주요 기관 및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종단 법보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진각종은 종조(宗祖)인 회당(海堂) 손규상(1902-1963) 대종사를 기리기 위한

지역 문화행사인 '2012 회당문화축제'를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울릉도에서 개최한다.

'독도 & 아리랑'을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도동항 미니콘서트, 동해지킴이 위문콘서트, 독도아리랑 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진각종은 올 10월경 진각문화전승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종단 쇄신 위한 교역직 인사 단행

전통불교문화원장, 국장단 등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2일 제33대 집행부의 발전계획 완수와 종단 쇄신을 위한 인사를 시행했다. 자승 스님은 먼저 전 본부장 정안 스님의 후임으로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 본부장에 초격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이어 자승 스님은 총무국장 광전스님, 기획국장 남전스님, 감사국장 무관스님, 재무국장 설안스님, 호법국장 우봉스님,



조사국장 법진스님, 사서국장 현담스님, 직할교구 사무처 사무국장 진관스님, 문화사업단 사무국장에 등묵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호법부 상임감찰에 법상스님과 법하스님을 각각 임명했으며, 호법부 호법과장에 법원스님, 조사과장에 종수스님을 신규 임명했다.

신종일 기자

천태종 '행복한 가족주말학교' 개설

천태종(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은 글로벌문화교류포럼과 함께 7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총 10회(월1-2회)에 걸쳐 '주 5일제 수업을 위한 행복한 가족주말학교'를 개설한다.

다문화가족과 내국인 가족 100명(25-30가족) 대상의 가족주말학교는 단양 일대 캠핑장과 한강 난지 캠핑장, 전국 농촌 봉사활동지, 양로원, 북한, 명락사 교육관 등지에서 열린다.

주말가족학교는 △가족학교 오리엔테

이션 및 강연(7월 9일, 서울 명락사 교육관), △구인사 답사 및 농촌체험 캠프(7월 28-29일, 단양) △양로원 자원 봉사(8월 4일) △가족 캠핑(9월 1-2일, 한강 주변 캠핑장) △농촌 봉사(9월 15-16일) △관악산 등반(10월 6일)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돌봄 연탄 나눔(10월 20일) △김장 김치 나누기(11월 3일) △양로원 자원 봉사(11월 17일)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마감은 7월 23일까지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2)882-7896 김주일 기자

"정말 불교적 삶을 질문해봤는가"

7번째 야단법석서 스님들 재가자에 '쓴 소리'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7월 3일 '출가, 재가에게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7번째 야단법석을 열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한 사람은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스님은 질문없는 재가자가 스님들을 퇴보시킨다고 지적했다. 도법 스님은 "나는 수행 전문가다. 전문가에게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하는 재가자를 보지 못했다"며 "질문이 없다는 것은 삶을 주체적으로 이해하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님들한테 정말 가치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따져야 한다. 불자를 위해서도 스님을 위해서도 질문을 해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스님들도 긴장을 하지 않는다. 목탁치고 엄벌만 하면 된다고 본다"고 성토했다.

한편, 야단법석은 7월 10일 '신행, 생애, 마음, 봉사공동체로서 사찰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17일에는 '근현대 불교흐름의 종교적 이해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 모색', 24일에는 '결사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다. 신종일 기자

'승려 도박사태' 조사 결과 공개

불법촬영 제작...도박 공권 정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도박사건 조사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조계종은 도박에 참여한 스님 등 7명은 공권정지 10년, 도박 현장을 불법 촬영한 스님은 제작의 징계를 호계원에 회

부했다. 정한영(성호 스님) 씨와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한 김모 씨에 대해서는 조사 일기로 결정했다.

조계종은 "현행 승려법이 도박이나 도박 등의 승풍실추 행위를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어 관련법의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승풍실추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해 현행 중법 내에서 최대한의 징계 확보로 종단의 승풍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종일 기자

동 경봉대선사 탄신 120주년 열반 30주기 다례재 행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에서서는 근대의 선지식으로 선풍을 진작하시고 중생교화에 헌신하셨던 경봉대선사의 탄신 120주년과 열반 30주기를 맞아 추모재를 봉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귀한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2년 7월 16일(음5.27)월요일 오전 11시
장소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주관 경봉문도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의 055)382-7182, 382-7083

기념사업

- 경봉대선사 열반 30주기 특별전 『삼소굴(三笑窟)』
전시일정 : 2012년 7월 13일(금) ~ 9월 23일(일)
장소 : 통도사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
경봉대선사 다큐멘터리 불교TV 방영
1회 - 7.16(월) 20:00, 2회 - 7.18(수) 15:30, 3회 - 7.22(일) 13:30
경봉대선사 사진집 『삼소굴 향성 三笑窟 香聲』 발간
2012년 7월 16일(월) 다례재에 봉헌
(재)경봉장학회 2012년 장학금 지급
2012년 7월 16일(월) 다례재
통도신문화재단 건립 : 2012년 하반기

